

□ 사례명 : 언택트(Untact) 시대!! 비대면 안심방역게이트로 다시 웃는 안동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위 치 : 안동시 하회마을, 월영교 ○ 추진기간 : 2020. 5. ~ 6. ○ 사 업 비 : 49백만원(전액 시비) ○ 사업내용 : 안심방역게이트 2동 설치
② 추진 경과	○ '20. 2. 22. ~ 4. 19. : 코로나19 53명 발생 ○ '20. 5. 6. : 사회적거리두기 ⇒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 ○ '20. 5. 중 : 방역 + 관광활성화를 위한 안심방역게이트 제작 ○ '20. 5. 28. : 비대면 안심방역게이트 설치 및 운영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인적 방역비용 vs 게이트를 활용한 방역비용 비교』 ⇒ 책정할 수 없는 무형적 스트레스 비용 완벽 해소 주안점 ○ 『안심방역게이트 이동 편의성』 문제 ⇒ 최대한 경량화 소재, 이동식으로 제작
④ 우수사례 내용	○ 안동시 대표 주요 관광지 비대면 안심방역게이트 설치 ☞ 설치장소 : 하회마을, 월영교 ○ 관광지 방문객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제로("0") ○ 언택트(Untact) 시대, 비대면 방역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지 환경 조성 ⇒ 관광분야 활성화 기여
⑤ 성과	○ 코로나19 안정적 관리 ⇒ 지역 내 발생 × ○ 코로나19시대 관광분야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변화된 관광수요에 맞춤형 대응 ○ 조용히 밀려오는 관광객으로 관광분야 서서히 회복

언택트(Untact) 시대! 비대면 안심방역게이트로 다시 웃는 이동

1. 과제 선정 내용

-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바탕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천만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금년 1월 1천억원 관광프로젝트인 지역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됨
-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연결되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적인 추진이 계획된 가운데 코로나19가 발생함
-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 지체와 관광객 대폭 감소로 관광분야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짐

2. 문제원인 분석

- 『이 상황만 넘어가자...』 오직 방역에만 몰두
 -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여파로 방역에만 급급한 나머지 관광객 감소로 미칠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대해 대책 미비
 -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한 미인지
- 『침체해소는 추후 문제 아닌가?』 동시에 다가오는 경제전시상황 미인지
 - 대처 방안에 있어 선(先) 방역, 후(後) 경기회복 노선에 대한 낙관적 전망 ☞ 방역과 경기회복 동시 추진을 위한 노력 부족
 -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경제전시상황 도래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현황
 - 발 생 일 : 20. 2. 22. ~ 20. 4. 19.
 - 발 생 자 : 53명
 - 발생환자 최종 완치일 : 20. 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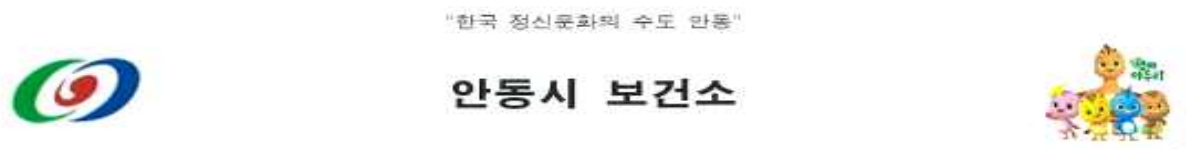
○ 생활방역 속 침체된 관광분야 활성화 대책 마련 준비('20.5)

【관련사진】



○ 언택트(Untact) 시대 비대면 안심방역게이트 구입 시행('20.5)

【관련자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방역게이트 구입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1,000만 관광객 맞이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방역게이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 소요예산 : 금49,000,000원(금사천구백 만원)

2. 구입내역

[단위:원]

제품명	규격 / 단위	수량	단가	소요예산
비대면 방역게이트	1.9m(가로)*2.5m(세로)*2.4m(높이) / 대	2	24,500,000	49,000,000

3. 구입방법 : 견적에 의함

4. 세출과목 : 정책)시민건강증진 단위)감염병예방관리 세부)코로나19감염증방역장비
및물품지원사업 편성목)자산취득비 통계목)자산및물품취득비. 끝.

※ 안심방역게이트 속성 : 자동문, 열화상카메라, 플라즈마 활성수 자동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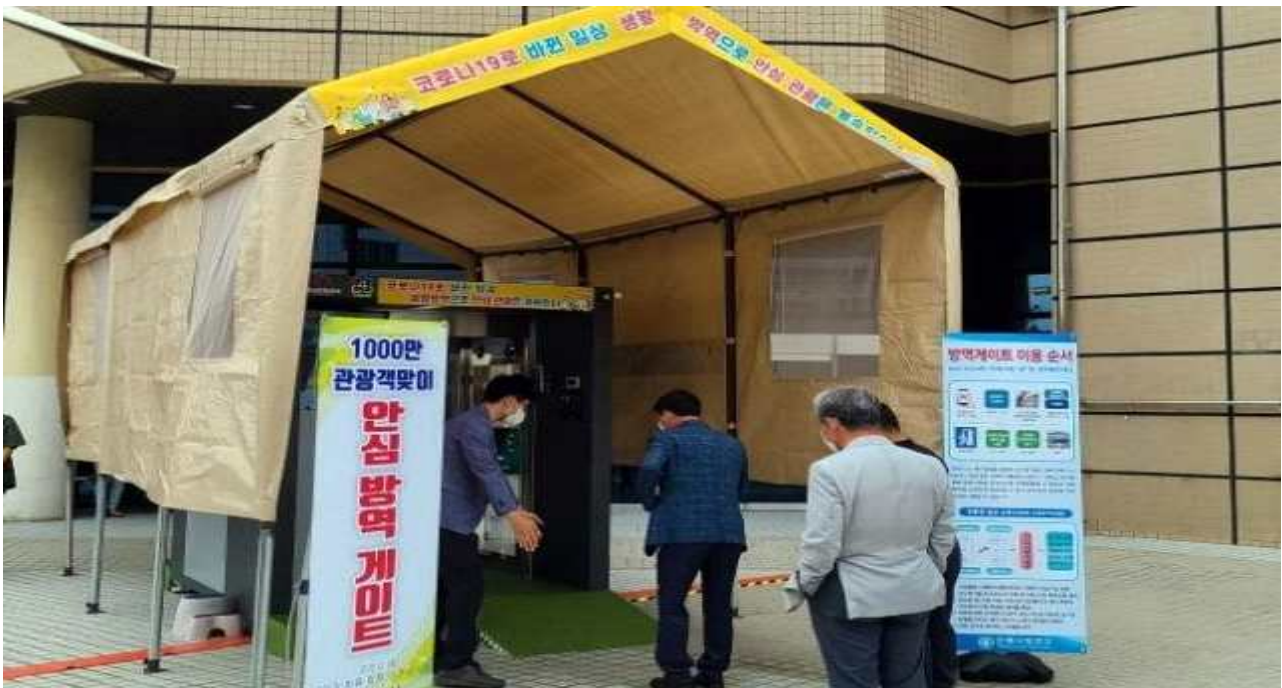
○ 하회마을, 월영교 등 주요 인기 관광지 전국 최초 시범가동(“20.5)

【관련사진】



○ 『경북 관광 붐업을 위한 상생 협약식』 시 시범설치 큰 호평(“20.6)

【관련사진】



4. 장애극복

○ 『인적 방역비용 vs 게이트를 활용한 방역비용 비교』

⇒ 책정할 수 없는 무형적 스트레스 비용 완벽 해소 주안점

- 가고는 싶으나 불안하여 갈 수 없는 관광객의 심정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역시스템 마련 고심 끝에 비대면 안심방역게이트 도입
- 전국 최초 사례로 소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 방역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발열체크 장비, 소독장비, 제반 소요
인건비 등 소요 예산과 안심방역게이트 제작비를 비교하여 비용
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 인적 방역 vs 게이트를 활용한 방역
객관적 비교 불가
- 아울러, 산술적으로 책정할 수 없는 관광객, 시민의 감염증, 방역
에 대한 무형적 스트레스 비용 완벽 해소에 최우선으로 주안점
을 둠

○ 『안심방역게이트 이동 편의성』 문제

- 안심방역게이트 규모 : 1.9m(가로) × 2.5m(세로) × 2.4m(높이)
☞ 상황에 따라 필요지역 재배치 시 이동의 편의성 한계에 봉착
- 필요시 적재적소 배치하기 위한 최대한 경량화 소재, 이동식으로
제작
☞ 도산서원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방역 강화를 위해 당초 월영교
에 배치된 안심방역게이트를 도산서원으로 이동 배치 ⇒ 적
재적소 활용 및 편의성 제고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물러나는 코로나19』 코로나19 안정적 관리
 - ‘20년 4월 지역 내 환자 발생 이후 현재(9월)까지 지역 내 발병 ×
 - ’ 20년 5월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환에 따라 주요 관광지에 비대면 안심방역게이트 설치로 코로나19 안정적 관리
- 『관광분야 기지재 “활짝”』 코로나19시대 관광분야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지침이 완화되었지만 비대면 관광지를 선호하는 관광수요 갈수록 증대
 - 열화상카메라와 플라즈마 활성수의 자동분사형 방역시스템을 갖춘 비대면 안심방역게이트 설치로 변화된 관광수요에 맞춤형 대응
 - 비대면 발열체크 및 개별 소독으로 감염증 효과적 대응 및 안심하고 편안한 관광지 환경 조성에 기여
 - 코로나시대 문화관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작점이 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관광 방향 제시
- 『나도 가볼까?』 조용히 밀려드는 관광객
 - 안심방역게이트 설치장소인 하회마을, 월영교를 중심으로 ‘20년 7월 ~ 8월 2020 세계유산축전과 안동문화재야행(월영야행) 성공적 개최
 - 코로나시대에 조용하고 안전한 비대면 맞춤형 명품관광지 조성으로 조용히 밀려오는 관광객으로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 수입 증대
 - [참고자료] 하회마을 관광객 추이 (자료 : 하회마을 입장료)

구 분		2019년	2020년 4월	2020년 8월
관광객 수	평일	600명	0명	300명 ~ 400명
	주말	3,000명	50명 이내	600명 ~ 700명

☞ 조용히 밀려오는 관광객으로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

6. 관련자료

NEWSIS : 2020. 5. 28.

NEWSIS 지방 > 지방일반

안동 하회마을 등에 비대면 안심 방역 게이트 운영

등록 2020-05-28 09:29:36 | 수정 2020-05-28 09:59:04



하회마을에 설치된 '비대면 안심 방역 게이트' (사진=안동시 제공)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주요 관광지에 '비대면 안심 방역 게이트'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한 조치다.

우선 하회마을부터 시범 운영하는 안심 방역 게이트는 가로 2.6m, 세로 1.9m, 높이 2.5m 크기다.

열화상카메라와 플라즈마 활성수의 자동분사형 방역시스템이 장착됐다.

자동문이 설치돼 통과하기만 해도 방역이 가능하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비대면 안심 방역 게이트가 설치되면 관광객들이 방역 후 안심하고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31st

안동 문화재야행(월영야행), 성황리 마무리

기사입력 2020.08.10 15:35:09 | 최종수정 2020.08.10 15:35:09 | 정재우 기자 | uw5000@etn.co.kr

안동 문화재야행(월영야행), 성황리 마무리



안동문화재야행 장면(제공-안동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하는 문화재야행(월영야행)이 8일부터 9일까지 4일 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안동의 뜨거운 여름밤을 즐겁게 만들어 준 월영야행은 월영교 일대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안동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름 문화행사다.

‘달빛이 들려주는 안동의 문화재 이야기’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문화재야행은 안동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전시, 공연 형태로 연출했다. △야경(夜景·월영교 등간, 빛터널, 연등, 대형달, 포토존), △야로(夜路·달빛따라 걷는 안동 이야기 길, 달빛조각 모으기 스탬프 투어), △야화(夜畫·안동의 문화재를 담은 디지털 전시, 문화재 사진 전시), △야선(夜線·오른 라디오, 내가 직접 전하는 달빛 이야기, 안동의 문화재 기행에 얽힌 사연을 송출하는 현장방송), △야숙(夜宿·안동의 고락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 프로그램)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달밤길을 따라 걸으며 월영교 일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임청각, 석빙고, 범종사지 현충전탑, 월영대 등의 문화재 야경을 따라 거닐며 스탬프 투어도 제공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창맛비로 다소 아쉽지만, 비가 적게 온 첫 날과 마지막 날 수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돼 여름 대표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아름다운 안동의 야경을 또다시 멋지게 볼날

뉴스랩 : 2020. 8. 21.

뉴스랩

HOME > 사회

'2020 세계유산축전-경북' 뜨거운 관심속 순항

윤 조현성 기자 ① 승인 2020.08.21 10:52

| 경주, 안동, 영주에서 8월 한달간 진행중, 코로나19 방역에 철저히 대비



▲ '2020 세계유산축전-경북' 뜨거운 관심속 순항

[뉴스랩] '2020 세계유산축전-경북'이 행사 중반을 지나며 방문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달간의 대장정의 막을 올린 '2020 세계유산축전-경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인류의 문화가치 경북에서 꽃피다'라는 주제로 경북도내 세계유산